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는 이웃사랑성금 모금을 위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105억 5500만 원 상당의 성금 모금에 나선다.

및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도의회 600만 원,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3000만 원, 전남개발공사가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조성희 신임 이사장 취임식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은 지난 1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2대 조성희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성진 재단 초대 이사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박창수 씨제이제2대 원장, 최철호 재단 IRB 위원장 등 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재단이 치매극복 연구개발과 치매의료산업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 신임 이사장은 이날 '치매극복 연구기술 개발 및 치매의료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 영화 거장' 김수용 감독 별세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끈 거장 김수용(사진) 감독이 3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영화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요양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1929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학창 시절이던 1945년 해방 직후 3·1 운동에 관한 연극을 연출하는 등 일찍부터 극 예술에 재능을 보였다. 6·25 전쟁 때 통역교사로 복무했던 고인은 정전 이후 국방부 정훈국 영화과에 배치되면서 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데뷔작은 '공채가' (1958)다.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뛰어든 그는 '벼락부자' (1961) '청춘교실' (1963) 등으로 코미디물을 내놓다가 '굴비' '혈맥' (1963) '꽃마을' (1965) '안개' '탄신' (1967) '토지' (1974) '만추' (1981) 등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잇달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꼽히는 고인의 작품 '저 하늘에도 슬픔이' (1965)는 당시에도 대만 등으로 수출돼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렸다.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고인은 다작으로 유명하다. 1999년 '침향'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109편의 영화를 내놨다. 1967년 한 해에만 10편을 선보이기도 했다. 고인은 신상옥, 유현목 감독과 함께 1960년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문하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영 감독과 이창호 감독, 배우 안성기, 장미희 등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밀알중앙회강사랑환경대학, 환경정화 공익캠페인



밀알중앙회강사랑환경대학(대표고광현)은 지난 1일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환경정화 공익활동과 함께 공익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호남권 최초의 국토교통부 지정 국가실기시험장인 광주시 북구 용동 등 2곳을 순회하며, 전남도청-용동교 구간(1.3km)에서 펼쳐졌다.

고광현 대표, 10기 한정숙 회장, 밀알중앙회 김성수 부총재 등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 20여 명은 동강대학교 드론과(학과장 김기원), 북구청 드론팀(박대진 주무관) 후원을 받아 드론 작동요령을 익히고 드론 사진을 환경정화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출신 강태석 선수, 아시아 세계기술대회 은메달

광주 출신 강태석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23·사진)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회 2023 아시아 세계기술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2024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이 모여 실력을 겨룬 행사다. 지난 11월 27~2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번 대회에는 30개국, 28개 분야 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했으며 강 선수는 '패션 테크니컬(Fashion Technical)' 분야에서 영예를 안았다.

강 선수는 2차례의 평가전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72년 역사의 세계 최고 직업기술 세계대회인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자격을 따냈으며 내년 대회때까지 숙련기술진 흥원에서 합숙하며 실력을 다지게 된다. 강 선수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 모다인패션 디자인학원에서 전성연 원장의 지도를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 한국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의 지원 속에 상을 거둬들였다. 전성연 원장은 "패션·섬유 분야 인프라가 빈약한 지역에서 발굴한 강태석 선수의 수상은 패션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희망을 준다"며 "청년기술 인재들의 다양한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 박진석 전자공학과 교수 한국전자파학회 '젊은 연구자상'



전남대학교 박진석(사진) 전자공학과 교수가 한국전자파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집적회로 및 시스템 연구실 책임연구자로 5G·6G·위성통신용 집적회로 기술, 레이더 시스템, 빔포밍 시스템 등 전자 응용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고성능 밀리미터 파 집적회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학회 내 마이크로파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 저명학술지 및 학회 발간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며 전자 응용분야 학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Start Time, and End Time.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End Time. Lists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0월 22일 丙申)
36년생 잘 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겠다. 48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애매하다면 흥하니 흑백은 확실히 가르는 것이 낫다. 72년생 운용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84년생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96년생 공을 들인다면 꼭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21, 81